

## 제7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| 학교        | 성명 | 호문금 | 학년 | 생년월일         |
|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
| 산동대학교(위해) |    |     | 3  | 1991년 9월 28일 |

여 중

우리 중국 말에 는 '여 중 남 명 (愛憎分明)'  
 이 라는 말이 있다. 사랑과 비움은 엄격  
 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 
 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  
 는다. 나한테는 사랑이 있어야 비움이  
 생길 수 있다 는 것이다. 그래서 미움은  
 그저 사랑으로 비롯된 생긴 것이 라고  
 생각한다. 그것 ~~은~~ 바로 우리 할아버지 판  
 테시 배운 것이다.  
 추억정 밖은 날 ~~빛~~ <sup>부</sup>아래 산책하는 것  
 은 나로 하여금 바람도 그림자가 있다  
 는 전설을 생각하게 만든다. 이런 전설  
 들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 
 많이 들었다.  
 "할아버지, 저 하늘의 별이 왜 그  
 게 밝아요?" 4살이었던 나는 호기심에  
 가득 차고 있었다.  
 "그것은 천사의 눈이다. 천사들은 평  
 에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 
 에 살고 있 는 사랑들의 모습을 아주  
 좋게 봐. 그래서 매일 밤에 이렇게 너  
 다 보고 있어..."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  
 했다.  
 "진짜요? 그럼 나도 천사 되고 싶어  
 요. 그러면 나도 이런 예쁜 눈을 가  
 질

# 제7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| 학교        | 성명 | 호문름 | 학년 | 생년월일         |
|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
| 산동대학교(위해) |    |     | 3  | 1991년 8월 28일 |

수 있을 기예요. "

" 할아버지 는이 는 우리 어머니가 누구보

나도 예뻐. 그리고 천사가 되려면 좋은

인물을 많이 해야 돼. 착한 사람이야말로

천사가 될 수 있어..."

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집의 생계를

위해서 나를 돌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

다. 그래서 나를 벌지 않는 할아버지의

집에 보냈다. 그때 할아버지는 나에게

없이서만 되는 존재이었다. 할아버지를

부처사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비마음속

에 천사라고도 할 수 있었다.

거기만 유치원에 들어간 후 할아버지

에 대한 이런 감정을 점점 변하고 비

음만 받는다. 할아버지가 평소 예열심히

공부해서 나중에 불경비에 가나는 장소

리를 계속 끊임없이 할 뿐만 아니라

비재일 때 무조건 책이나 만년필, 그

리고 공책만 사 주셨기 때문이었다. 내

나이의 나를 여자애들은 예쁜 옷으로 선

물로 받았는데 내가 왜 책만 받을까수

있을까? 나도 예쁜 옷파인받을 거리고

싶었다. 나도 예뻐지고 싶었다. 그래서

이노생일 날 나에게 마음속에 있는 불만

을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.

# 제7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| 학교 | 산동대학교(위해) | 성명 | 호은금 | 학년 | 3 | 생년월일 | 1991년 9월 28일 |
|----|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|
|----|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|

" 할아 버지, 이제 책을 더 이상 받고  
읽지 않아요. 나도 예보 옷을 갖고 싶  
어요. "

" 문준아. 옷이나 신발도 각 책 더 줘  
지 않을까? 옷은 자주 입으면 낡아 지  
지만 책을 읽으면 옷을 수복 더 많은 지  
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나  
중에 더 재미있는 책을 내가 들께..."

" 읽어요! : 나 예쁜 옷만 주어요. "

" 문준아. 말 좀 들어. 책을 많이 읽  
어야 나중에 니가 커서 북경대에 갈  
수 있단 말이야..."

" 읽어요! : 나 책이 읽어요! 공부도 읽  
어요! 북경에도 읽어요! 난 할아버지 미  
워요! 나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거  
랑겠어요! :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! " 너  
무 심방한 내가 소리를 지르기도 시작했  
다. 할아버지도 갑자기 화나 서서 배  
물기를 때렸다.

그날 나는 많이 울었다. 할머니는 아  
무리 말려도 소용없는 바람에 엄마를  
불러 나를 데려갔다. 그날 이후 나는  
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기도 시작했  
다. 명절 때만 할아버지의 집이 갔는데  
도 할아버지와 말을 거는 하지도 않았다.

# 제7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|    |            |    |     |    | 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|
| 학교 | 산동대학교 (위해) | 성명 | 호문준 | 학년 | 3 | 생년월일 | 1991년 9월 28일 |
|----|------------|----|-----|----|---|------|--------------|

설사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도 나  
 는 그냥 아무 대답없이 띄어 갔다.

시간 온 손을 같이 지나 갔다. 이런 이모  
 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오래된 것 같  
 았다. 고등학교 3학년 한 학생인 나는  
 앞에 각 리는 대학 입학 시험 때 문에  
 몰색 없이 바빠졌다. 그래서 집에 갈  
 시간도 없어졌다. 하지만 이상하게 시험  
 보기에 틀린 점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너  
 중에서도 나더웠다. 그리고 그날 얼마  
 전에 전화도 받았다.

"문준아... 너 말이... 아니... 너 말은...  
 나 할아버지가 돌아갈까봐 너 너 때문에  
 많이 슬피하겠지?"

"왜? 왜 갑자기 할아버지 애기를  
 "아니... 아무일도 없어. 할아버지가 잘  
 계셔. 걱정마. 시험은 잘 보면 꼭 합격할  
 은 조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겠지?"

"나 설배 북경에 안가! 북경에 살  
 고!" "할머니 말이 "북경에" 나는 말이  
 나와서 나는 갑자기 화가 나서 전화를  
 먼저 끊었다.

, 시험이 드디어 끝났다. 나는 짐을  
 귀해서 집에 돌아 갔다. 집에 들어온  
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. 가족들의 표정

# 제7회 중국 성균 한글 백일장

| 학교         | 성명  | 학년 | 생년월일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
| 산동대학교 (위해) | 호민심 | 3  | 1991년 9월 28일 |

이 다 목 기 위 보 였 다 . " 니 할 아 버 지 가 ... 돌아 가 셴 어 ... " 명 마 는 무 겁 기 말 했 다 .

엄 마 의 말 이 버 기 청 천 병 각 이 였 다 . <sup>나</sup>는 그 때 할 아 버 지 에 대 한 미 용 이 다 사 아 셴 다 . 그 지 할 아 버 지 와 는 화 이 지 없 던 세 월 만 떠 물 았 다 .

" 이 건 사 실 이 아 니 야 ... " 목 동 아 을 단 나 는 재빨 리 할 아 버 지 걸 을 향 해 달 려 갔 다 . 문 앞 에 앉 아 있 는 할 머 나 가 나 를 보 라 눈 시 울 을 불 려 다 .

" 할 아 버 지 ... " <sup>그</sup>는 <sup>그</sup>시 <sup>그</sup>현 <sup>현</sup>을 제 어 도 못 보 면 죽 을

머 리 에 못 갈 까 봐

" 니 할 아 버 지 가 이 미 천 국 에 가 셴 어 ... 그 러 고 이 영 강 이 다 를 전 하 니 에 기 진 화 될 기 말 라 고 했 는 데 ... 사 실 이 영 감 이 너 를 원 하 나 보 고 싶어 했 는 지 ... 니 이 공 파 나 너 를 만 나 고 싶어 했 는 지 ... 니 이 공 을 계 속 보 도 면 서 죽 을 때 까 지 는 을 감 지 도 못 했 ... 그 래 서 니 할 아 버 지 를 원 방 하 기 가 ... 예 전 에 공 복 만 시 키 는 것 과 때 만 것 많 이 후 회 하 너 라 ... "

나 는 다 시 비 오 듯 이 눈 물 이 쏟아 졌 다 . 할 아 버 지 는 나 를 이 렴 게 사 망 하 고 있 는 것 을 그 때 아 말 기 피 었 다 . 나 도 할 아 버 지 를 앞 은 후 에 야 할 아 버 지 를 앞 아 나 감 기 사 망 하 고 앓 는 것 을 알 기

